

Online Series

2014. 12. 8. | CO 14-16

사드(THAAD)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제언

홍우택(북한연구센터 연구위원)

최근 사드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지난 6월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미 국방부에 건의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이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도 없고, 또 한·미 간에 협의조차 하질 않았지만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찬반논란은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찬반논리는 모두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있다. 한반도를 방어하는 데는 사드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적극적으로 사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그리고 사드를 도입해서 쓸데없이 중국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모두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주장들이다.

사드는 필요한 방어 수단일까?

사드의 한국배치는 결정되지도 않았고, 한·미 간에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과 반대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사드의 한국배치가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의 핵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사드가 효율적인 방어수단인지 여부는 논란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다.

사실 북한은 미사일의 고도를 높이지 않고도 남한의 주요지역을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북한이 저고도로 공격을 한다면, 고도 15km이내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로도 북한의 핵미사일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따라서 얼핏 계산하면 고도 40~150km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고고도방어체계인 사드는 필요하지 않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바람과는 다를 수 있다. 우리가 고도 15km이내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에 주력하면, 북한은 고고도를 비행하도록 미사일의 궤도를 수정할 것이다. 그러한 조짐은 2014년 한 해 동안 동해안으로 발사한 북한의 노동 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의 궤적을 보면 알 수 있다. 시험 발사한 총 9회의 미사일의 최대 고도는 130~150km이었으며, 실비거리는 250km에서 최대 650km로 측정되었다. 가장 짧은 실비거리를 보인 스커드 미사일의 최대 고도도 150km를 기록했다. 결국 북한의 미사일이 저고도로 남한을 공격할지 아니면 고고도로 남한을 공격할지 장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대비하여 방어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사드와 비용 부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드는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방어무기다. 그래서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만큼 사드에 드는 비용은 만만치가 않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면 한 발 물러서 사태를 주시할 필요도 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완성하는 데는 17조원이 든다고 한다. 만약 사드를 도입하게 되면 추가로 3~6조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한국형 차기전투기(KFX) 사업에는 개발에만 8조 5000억, 120대를 양산하는 비용은 9조 6000억 등 총 18조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래저래 국방에 드는 비용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비용을 감안하면 우리에게 최선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고고도를 비행하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이다. 성급하게 사드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는 머뭇거리는 것보다, 만일 미국이 적극적으로 배치를 검토하고 협의를 요청하면 그때 가서 주한미군기지에 배치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낫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성급하기 보다는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검토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탄도미사일 능력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어찌면 미국은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를 검토할 수도 있다. 진정한 미국의 의도가 무엇이든 만일 미국이 사드배치에 협의를 해온다면 거절해서는 안된다. 현재 한국은 독자적인 핵무장을 포기하고 동맹국인 미국의 핵우산에 국민의 안보를 의지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만큼 필요하면 돕겠다는 의연한 자세가 있어야 미국도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사드는 중국을 자극하는 요인일까?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는 소문에 중국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는 것은 중국에게 위협이 되기에 사드가 배치된 주한미군 기지는 중국의 타격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은 한 회의석상에서 나온 중국 예비역 장성의 발언이다. 주한 중국대사는 사드 배치가 한·중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안에서도 사드를 도입하는 것은 중국을 쓸데없이 자극하는 것이고, 심지어 한·중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발끈하는 이유는 자신의 영향력 상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탄도미사일을 주요전력으로 삼고 있는 중국에게 사드는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선제적 방어수단이다. 특히 사드 체계의 AN/TPY-2 레이더는 중국의 베이징을 비롯한 내륙 지역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도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사드가 코앞에 배치되는 것은 전력 면에서 미국에 비해 열세에 처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중국은 사드는 안정을 해치는 무기체계라고 비난을 한다.

이러한 중국의 비난은 ‘나는 되지만 너는 안된다’라는 억지에 가깝다. 중국의 14연구소라는 곳에서는 JY-26이라는 레이더를 자체개발하였다. 이 레이더의 탐지 반경은 500km에 달하며, 스텔스 전투기를 정확히 탐지해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년 3월 한·미 연합훈련에서 사용된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의 훈련

전 과정을 감시했다고 중국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까지 했다. 사드를 배치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이미 중국은 한반도 상공을 감시하고 있다.

많은 칭송과 우려 속에 한국과 중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한·중 FTA를 두고 우리는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이 돈독해질수록 대북정책은 물론 다른 여러 분야에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중국도 같은 생각일지는 차분히 판단해야 한다. 어쩌면 중국은 우리와의 경제협력이 커지면 정치·안보적 사안을 비롯해 대미 견제정책을 추구하는데 있어 우리를 압박할 수단이 강해진다고 기대할지도 모른다.

모든 국가들은 자신들이 세운 기준으로 세상을 본다. 미국도 중국도 마찬가지다. 열세에 처해지게 되는 조치는 비난을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입을 다문다. 따라서 중국의 민감한 반응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만일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사드가 필요하다면 갖춰야 한다. 대중 경제의존도가 우리보다 더 높은 호주는 안보에 관해서는 중국과 각을 세운다. 호주가 어리석지 않다는 것은 중국이 더 잘 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시도하기보다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우리의 목소리도 낼 줄 알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드에 관해서도 냉정하고 유연하며 의연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KINU 2014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